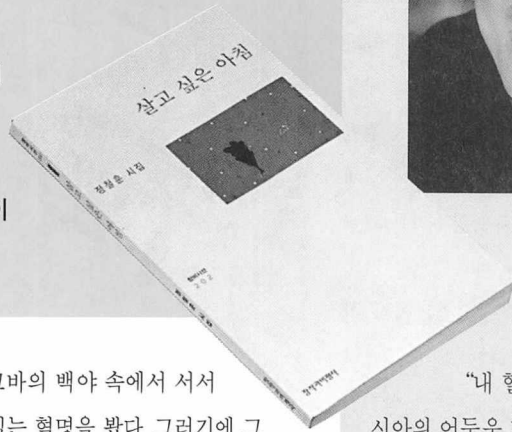


다시 '광주'와 '모스크바'를 노래한다

《살고 싶은 아침》 펴낸 정철훈씨

“퇴색한 이데올로기를 붙들고 있는 내 시가 얼마만큼이나 가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나름대로 정리하지 않고서는 저 자신이 더 불행해질 것 같았습니다. 제 자신에게, 그리고 시대에 던지는 저의 물음이 아직은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철훈씨

창작과비평사/B6변형/122면/5000원

새로운 세기의 요란한 시작과 함께 모스크바와 광주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갔다. 시인들은 더 이상 민중을 노래하지도, 혁명을 부르짖지도 않는다. 1990년대 이후 시인들은 초월을 꿈꾸거나 일상을 관찰하거나, 혹은 자본주의의 천박함을 질타하는데 몰두했다. 하지만 아직도 '혁명의 높은 깃발'을 흔들고 있는 시인이 있다. 정철훈씨(41)는 시집 《살고 싶은 아침》(창작과비평사)에서 혁명을 '패배한 역사'가 아니라 '진행중인 현재'로 되살리고 있다.

“퇴색한 이데올로기를 붙들고 있는 내 시가 얼마만큼이나 가치 있을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나름대로 정리하지 않고서는 저 자신이 더 불행해질 것 같았습니다. 제 자신에게, 그리고 시대에 던지는 이 물음이 여전히 의미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광주의 침몰과 침묵을 인정할 수 없다”

그에게는 러시아의 백야와 자작나무 숲의 신비로운 풍광이 낯선 이국의 정취만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땅을 진동시키며 내리는 빗줄기와 눈부시도록 환한 백야를 바라보면서 혁명의 예감에 몸을 떨었고, 혁명의 완성을 꿈꿨다.

“붉은 오존층을 뚫고 내리는 빗줄기는 마치 혁명처럼 / 대지를 두들기고 있었다... 잠들지 못하는 백야의 길고 긴 꼬리처럼 / 하얀 날들은 밤을 꼬박 새며 날갯짓하고 / 모스크바에 와서야 어둠은 비로소 밝혀지고 있었다 / 다시 혁명을 위하여 밤은 깊을수록 좋았다”(《백야》).

그는 모스크바의 백야 속에서 서서히 준비되고 있는 혁명을 봤다. 그러기에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광주의 침몰과 침묵을 인정”할 수 없었다. 혁명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미완인 채로 남아 있을 뿐이었다.

“안부를 묻는다 광주여! / 다시 한번 그대의 무사함을 묻는다 / 그대의 입술은, 그대의 가슴은, 그대의 자궁은 / 아직 튼튼한가 / 하룻밤의 역사를 잉태할 만큼 아직 굳건한가”(《금남로에서》).

이렇듯 광주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격렬하다. 어조는 비장하고 거칠다. 아직도 광주는 그의 가슴에 풀리지 않은 응어리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 역사가 없네, 눈물이 없네 / 이제 어린 두 발을 감췄던 / 배내옷에서부터 역사는 다시 쓰자”(《역사가 없네》)고 말하면서, 광주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잉태되기를 갈망한다.

그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러시아 외무성 아카데미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굳이 러시아를 택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월북해서 러시아로 이주한 큰아버지의 자취를 뒤쫓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 내력 때문일까. <사나운 잠> <겨울밤> <눈 내리는 아침> 등 가족사를 통해 우리의 비극적인 분단사를 조명하고 있는 시편들이 시집의 한권을 차지하고 있다. “연좌제와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며 “고춧가루 물고문을 받던” 아버지의 모습, “난파선” 같은 집안에서 “새벽마다 쌀 뒤주를 뒤지던” 어머니의 모습이 녹아 있는 이 시편들은 그의 시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다.

“내 혈육은 남과 북,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어두운 거리에서 오늘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시를 쓴 주체는 내가 아니라 역사에 흠뻑 젖어 부유하는, 어두운 뒷모습의 존재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자문하는 <시인의 말>의 한대목은 90년대 이후 경박해지고 경량화돼가고 있는 우리 시에 묵직한 추 하나를 매달아 놓는다.

우리 언어의 원형과 가락 찾고 싶어

《살고 싶은 아침》은 정철훈 시인의 첫시집이다. 지난 1997년 그는 서른여덟이라는 늦은 나이에 《창작과 비평》으로 등단했다. 그동안 발표했던 시가 만만치 않은 편수였지만 시집을 준비하면서 과감하게 쳐냈다.

“1996년 러시아에 출장갔을 때 다시 시를 쓰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대학시절까지 시를 썼지만 공부 때문에 한동안 미뤄 놓고 있었죠. 공부를 마치고 2년 정도 지나니 시에 대한 감각이 되살아나더군요.”

첫시집을 내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그는 이제 북한의 토박이말을 공부해볼 계획이다. 우리 언어의 원형적인 모습과 가락을 찾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 최갑수 기자